

芸窩 洪重聖의 詩會 활동 고찰

김 효 정*

1. 머리말
2. 운와의 삶과 시회 개관
3. 운와의 시회 활동 양상
4.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雲窩 洪重聖(1668~1735)의 詩會 활동과 그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이루어진 글이다. 운와는 無何堂 洪柱元(1606~1672)과 선조의 딸인 貞明公主(1603~1685)의 손자로 17세기 말~18세기 전반 한양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시회 활동을 벌였던 소론계 문인이다. 운와는 어려서부터 시에 뛰어났으며, 평생에 걸쳐 시회 활동을 이어 나갔다. 운와는 김창흡의 문인으로 노·소론계 시회에 두루 참여하였는데, 청년기에는 김창흡의 낙송루시사와 중택재시사에 참여하여 한위고시와 악부시를 익혔고, 중년에는 소론계 문인들과 기망에 시회를 자주 가지며 연대감을 강화하였다. 또한 만년에는 매화를 감상하는 시회에 자주 참여하였고, 기로회를 결사하여 친목을 다졌다.

운와가 참여한 시회의 양상을 ‘기망의 풍류 향유와 연대감의 강화’, ‘매화 완상을 통한 시흥의 발현’, ‘한가로운 노년의 여유와 고아한 취미의 공유’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고는 17세기 말~18세기 전반 활발한 시회 활동을 벌였음에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운와의 시회 활동을 실제 작품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운와의 시문학 연구의 편폭을 넓히고, 당시 한양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노·소론계 문인들의 시회 활동 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연구교수 (tteuri5105@daum.net)

의미가 있으며, 소론계 문인 중심의 시회를 비중있게 다룸으로써 동 시기 노·소론계 시회 연구의 균형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 주요어: 운와 홍중성, 소론계, 18세기 전반, 시회, 김창흡

1. 머리말

이 글은 雲窩 洪重聖(1668~1735)의 詩會 활동과 그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이루어진 글이다. 일정한 문학적 지향을 공유한 창작 동인의 모임인 詩社는 교유와 시 창작의 場으로 18세기 들어 매우 활성화되었다. 대개의 문인들은 1~2개 이상의 시사에 참여하여 창작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시사를 결성하여 시를 짓는 것은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보편적인 문학 활동으로 노론과 소론, 남인과 소북계열 등 당파별 시사는 물론 중인계층의 여향 시사도 활발하게 활동하였다.¹⁾

운와는 17세기 말~18세기 전반 한양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시회 활동을 벌였던 소론계 문인으로 자는 君則, 호는 芸窩, 본관은 豐山이다. 운와는 無何堂 洪柱元(1606~1672)과 선조의 딸인 貞明公主(1603~1685)의 손자로 부친은 홍주원의 4남인 洪萬恢(1643~1709)이다. 京華世族의 대표적인 집안 이었던 운와의 가계는 당대 문화 예술을 이끌었는데²⁾ 18세기 후반 소론계를 이끌었던 耳溪 洪良浩(1724~1802)가 손자이고, 현손은 冠巖 洪敬謨(1774~1851)이다.

운와는 三淵 金昌翁(1653~1722)의 문인으로 평생에 걸쳐 詩友들과 함께 시회 활동을 이어 나갔다. 시회 활동에 대한 각별한 애호는 그의 손자인 홍양호에게 이어져 홍양호는 ‘四宜堂詩會’, ‘蘭社’를 結社하여 활동하였다.³⁾

1) 안대회, 「18세기 시사의 현황과 전개 양상」, 『고전문학연구』 41, 한국고전문학회, 2013, 422~426쪽.

2) 신영주, 「18~19세기 홍양호가의 예술 향유와 서예비평」,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어려서부터 시에 뛰어나 신동으로 불렸던,⁴⁾ 운와는 16세에 虛齋 申晳(1646~1690)의 딸과 혼인하였는데 운와의 고체시를 본 신엽은 크게 칭찬하며 시를 써 주기도 했다.⁵⁾ 신엽은 운와의 고체시를 읽으면 입안이 상쾌해지고 맑은 소리가 난다고 하며 魏晉의 고시에 견주었고, 운와의 知音이 洛誦子라고 하였는데⁶⁾ 낙송자는 김창흡의 호이다. 김창흡이 16세의 소년 운와를 지음으로 허락⁷⁾했다는 것은 운와가 매우 출중한 詩才를 갖춘 인재였음을 말해준다.

운와의 시는 당대 문인으로부터 高評을 받았다. 澹軒 李夏坤(1677~1724)은 “군칙의 평소 시는 온화하고 화평하여 뜯 기운이 한 점도 없고, 뒤뜰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 가장 좋다.”⁸⁾라고 평가하였고, 槎川 李秉淵(1671~1751)도 “늘 시에 盛唐의 풍격이 있는 것은 공 한 사람뿐이다.”라고 칭찬하였다.⁹⁾ 운와의 행적을 기록한 여러 문헌에서도 그가 시에 뛰어났으며, 당대 詩名이 높았던 后溪 趙裕壽(1663~1741)·昆侖 崔昌大(1669~1720)·이병연·滄浪 洪世泰(1653~1725) 등과 詩社를 결성하였다는 내용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¹⁰⁾

3) 홍양호의 ‘난사’에 대해서는 진재교, 「홍양호의 교유관계와 문학활동에 대하여」, 『한문교육논집』 13, 한국한문교육학회, 1999. 참조.

4) 洪重一, 「行狀[再從弟前參判重一撰]」, 『芸窩集』 권6. “聰穎好文辭, 九歲, 有不汎大海水, 安知天地壯之句, 人皆傳誦, 稱爲神童.”

5) 洪重一, 「行狀[再從弟前參判重一撰]」, 『芸窩集』 권6. “我讀洪生古體詩, 清颯颯生牙頰. 鏗如天球發奇響, 矯如名駒展逸足. 澹宕高潔世寡儔, 晉魏以下無此音. 知音者誰洛誦子, 流水高山伯牙琴.”

6) 洪重一, 「行狀[再從弟前參判重一撰]」, 「哀辭」, 『芸窩集』 권6. “澹宕高潔世寡儔, 晉魏以下無此音. 知音者誰洛誦子, 流水高山伯牙琴.”

7) 洪重一, 「行狀[再從弟前參判重一撰]」, 「哀辭」, 『芸窩集』 권6. “洛誦子, 卽金三淵昌翁一號也. 時公年甫踰成童. 而文詞夙就, 已從金公遊, 高步騷壇, 鼓倡風雅, 金公亦許以知音.”

8) 李夏坤, 〈書洪君則重聖楓岳錄後〉, 『頭陀草』 卷18. “君則平日之詩, 皆溫雅和平, 無一點浮氣, 無一句拗語, 最可喜.”

9) 洪良浩, 「祖考郡守贈史曹參判府君墓誌」, 『耳溪集』 권32. “槎川每稱詩有盛唐風者, 惟公一人.”

10) 洪重一, 「行狀[再從弟前參判重一撰]」, 「哀辭」, 『芸窩集』 권6. “雅不喜與人追逐, 而一代名公魁士, 樂趨下風. 如趙后溪裕壽·李槎川秉淵·洪滄浪世泰, 皆與之結爲詩社, 酬唱無虛日. 風流翰墨, 膾炙一世. 與崔昆侖昌大文契取深, 崔公歿, 公抱絕絃之悲.”; 洪良浩, 「祖考郡守贈史曹參判府君墓誌」, 『耳溪集』 권32. “當世名流如崔昆侖昌大·李槎川秉淵·趙后溪裕壽·洪滄浪世泰, 爭與定交, 結爲詩社, 風流翰墨, 照映一世.”; 洪良浩, 「芸窩集跋」, 『耳溪集』 권16. “府君蚤有志於文章, 從三淵金公, 聞詩道, 治樂府古風. 中歲以後, 一準唐杜之軌, 與趙后溪·李槎川·洪滄浪往來酬唱. (중략) 晚年, 與名公長德, 結爲耆社, 每春秋令辰, 選日置酒, 韶顏華髮, 照映簾几, 鳴琴賦詩, 毫墨淋漓, 文彩風流, 爲世所慕, 比之香山·東洛盛事.”

대체로 문인의 생애를 간략하게 서술하는 묘지명과 문집의 序跋文은 제한된 분량상 문인의 가장 특징적이고 두드러진 활동을 서술할 수밖에 없는데, 운와가 시사를 결성하여 활동한 사실을 부각시켜 서술한 것은 그만큼 그의 이력에서 시사 활동 차지하는 비중이 컸음을 말해준다.¹¹⁾

운와에 대한 선행 연구는 현재 운와의 문학론을 다룬 1편¹²⁾과 금강산 기행시를 다룬 연구 1편¹³⁾, 그리고 기문 연구 1편¹⁴⁾, 산문론에 대한 연구 1편¹⁵⁾에 불과하며, 운와의 후손인 홍양호와 홍경모 등을 연구하면서 그의 생애를 일부 언급한 정도이다.¹⁶⁾ 운와는 당대 뛰어난 시인으로 평가받았고, 그에 대한 기록에서 시사를 결성하여 활동하였다는 기록이 빠지지 않고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17세기 김창흡을 중심으로 한 노론계 시회 연구에서 운와의 집에서 열린 수약당 시회나 사의당시회에 대한 언급은 있었으나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¹⁷⁾

운와의 문집 『芸窩集』에는 501제 740수¹⁸⁾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중 시제에 ‘共賦’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49제에 이르고, 벼들과 함께 지은 시제가 170여 제에 이른다. 이는 전체 시제의 약 44%에 이르는 비중으로 운와가 벼들과 함께 시 짓기를 좋아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며, 시회 활동이 창작의 원동력이었음을 의미한다.

11) 안대회, 앞의 글, 426쪽.

12) 이상주, 「운와(芸窩) 홍중성의 문학론에 대한 고찰」, 『남명학연구』 19, 경상국립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2005.

13) 유명석, 「운와(芸窩) 홍중성(洪重聖)의 금강산 유람시 연구」, 『은지논총』 78, 온지학회, 2024.

14) 윤재환, 「芸窩 洪重聖 記文 研究」, 『한문고전연구』 48, 한국한문고전학회, 2024.

15) 백진우, 「운와 홍중성의 산문론과 비평적 특질」, 『동양고전연구』 102, 동양고전학회, 2026.

16) 이상주, 「18세기 초 문인들의 우도론과 문예취향-김창흡과 이하곤 등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23, 한국한문학회, 1999.; 진재교, 『이계 홍양호 문학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9.; 이영주, 「18, 19세기 홍양호가의 예술향유와 서예비평」,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이군선, 「관암 홍경모의 시문과 그 성격」,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17) 김보정, 「17세기 근기(近畿) 노론(老論)계열 시회(詩會)의 몇 가지 양상과 그 의미 -김창흡(金昌翕) 중심 시회를 대상으로」, 『동방한문학』 104, 동방한문학회, 2025.

18) 『운와집』소재 시를 형식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사나 시회는 문인들의 문학 활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만큼 운와의 시회 활동에 대한 고찰은 미시적으로 운와의 시문학 세계를 확장하는 작업이자 거시적으로는 18세기 전반 한양을 중심으로 한 시회의 활동 양상 일부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운와는 자신이 참여한 시회의 명칭, 규모, 장소 등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정확한 면모를 파악하는 것에 일정한 한계가 있으나 『운와집』을 비롯한 동인들의 문집 자료 등을 통해 최대한 구현해 보고자 한다.

이에 2장에서 운와의 삶과 운와가 참여했던 시회를 개괄하고, 3장에서는 운와가 시회에서 창작한 작품을 통해 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운와의 삶과 시회 개관

3~4명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시를 짓는 모임을 詩社, 詩會¹⁹⁾라고 하는데, 시사나 시회는 시 창작 모임이라는 점은 같지만 시사의 경우 詩會이 있고, 동인의 규모가 다수이며, 정기적으로 시사를 연다는 점에서 모임의 주기가 부정기적이고 동인의 규모가 소수인 시회와 다소 차이가 있다. 운와는 평생에 걸쳐 시회 활동을 이어갔는데 삶의 여정에 따라 시회의 양상이 변화하였으며, 대체로 소규모의 시회를 통해 詩作 활동을 이어갔다.²⁰⁾

권	오언 절구	칠언 절구	오언 율시	칠언 율시	오언 배율	칠언 배율	오언 고시	칠언 고시	육언 절구	장단구	총계
1	2제 3수	8제 20수	57제 82수	53제 61수	1제 12수	-	1제 1수	1제 1수	-	1제 1수	131제 183수
2	1제 3수	5제 14수	40제 63수	70제 97수	5제 10수	-	-	-	-	-	118제 187수
3	1제 8수	10제 21수	35제 47수	76제 99수	-	1제 1수	2제 2수	3제 3수	-	-	127제 181수
4	1제 1수	8제 20수	45제 59수	72제 97수	1제 1수	1제 1수	1제 1수	1제 1수	1제 8수	-	125제 189수
계	5제 15수	31제 75수	177제 249수	271제 354수	7제 23수	2제 2수	4제 4수	7제 7수	1제 8수	1제 1수	501제 740수

19) 안대회, 앞의 글, 424쪽.

20) 운와가 참여한 시사는 대개 소규모의 시회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시사와 시회의 용어를 구별하지 않고 시회로 통일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시회 활동의 근간이 되는 운와의 삶과 운와가 참여한 시회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의 표는 운와가 참여했던 시회를 정리한 것이다.

〈표-1〉 운와가 참여한 시회 목록²¹⁾

연번	시회 명칭 ²²⁾	활동 시기	同人	시회 장소 (동인의 성격)
1	洛誦樓詩社	1682년~ 1689년	김창흡, 홍세태, 李奎明(1653~1686), 趙正萬(1656~1739), 金昌業(1658~1721), 金時保(1658~1734), 金昌立(1666~1683), 俞命岳(1667~1718), 洪有人(1667~1694), 鄭龍河(?~1702), 崔東標(?~?) 등	김창흡의 집 (김창흡 문인)
2	重澤齋詩社	1682년~ 1683년	김창흡, 김창립, 유명악, 홍유인, 정하룡, 최동표 등	김창립의 집 (김창흡 문인)
3	既望詩會	1703년 7월 기망	呂光周(1666~1714), 權桓伯(?~?), 李眞儉(1671~1727), 李眞倬(1675~?)	충북 진안 의암 (소론계 문인)
		1707년 10월 기망	趙星壽(?~1729), 李眞佐(?~?), 洪九采(1670~1719), 洪重堯(1686~?), 李秉淵(1671~1751), 趙景命(1674~1726), 趙顯命(1690~1752), 尹游(1674~1737), 尹淳(1680~1741)	윤유의 교동 교제 (소론계 문인, 김창흡 문인)
		1709년 3월 기망	李德壽(1673~1744), 윤유, 윤순, 李眞源(1676~1709)	王子의 癡園 (소론계 문인)
4	樂齋詩會	1710년 이후	李重協(1681~?), 曹夏彥(1657~1699), 曹夏奇(1660~1738), 洪萬迪(1660~?)	이중협의 집 (소론계 문인)
5	淸風溪詩會	1725년 이후	이병연, 金時敏(1681~1747), 金令行(1673~1755)	청풍계·태고정 ·삼청동 (김창흡 문인)

21) 운와가 참여한 시회의 선정은 시사의 명칭이 언급된 기록과 『운와집』 소재 시, 시회에 참여한 동인의 문집 소재 시를 참고하여 운와를 포함하여 3명 이상의 동인이 참여한 경우를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22)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었던 낙송루시사·중택재시사·청풍계시사·사의당시회·징회각시회·수악당시회 이외의 시회 명칭은 시회가 열렸던 장소와 시기를 바탕으로 필자가 임의로 명칭한 것이다.

연번	시회 명칭	활동 시기	同人	시회 장소 (동인의 성격)
6	新村詩會	1727년 이후	조유수, 宋成明(1674~?), 이병연, 최주악, 조하기, 鄭叡(1676~1759)	조유수의 집 (김창흡 문인, 소론계 문인)
7	松石軒詩會	1728년 이후	조유수, 송성명, 이덕수, 윤순, 趙泰億(1675~1728), 조문명, 조현명	송성명의 집 (소론계 문인)
8	靑門詩會	1719년 이후	이병연, 김시민	靑門 (김창흡 문인)
9	雙栢亭詩會	유두일	徐命均(1680~1745), 曹夏望(1682~1747), 任象鼎(?~?)	심준의 집 (소론계 문인)
10	挹白堂詩會	1724년 이후	조유수, 任守寬(1696~1762), 任守寅(1703~?)	임수관의 집 (소론계 문인 소북계 문인)
11	守約堂詩會	1709년 이후	조유수, 이병연, 김창흡, 조문명, 윤순, 홍세태	홍중성의 집 (김창협 문인, 소론계 문인)
12	四宜堂詩會	1709년 이후	조유수, 이병연, 이하곤 외	홍중성의 집 (김창협 문인, 소론계 문인)
13	澄懷閣詩會	1709년 이후	홍세태, 이병연	홍중성의 집 (김창흡 문인)
14	藝谷詩會	1728년 이후	尹昌來(1664~?), 조문명, 申致瑾(?~?)	조문명의 집 (김창흡 문인 소론계 문인)
15	松翁宅詩會	1730년 무렵	윤창래, 김영행	윤창래의 집 (김창흡 문인)

운와는 일찍이 김창흡의 문인이 되어 학문과 시를 익혔고, 1683년 16세에 신엽의 딸과 혼인하였다. 신엽은 象村 申欽(1566~1628)의 손자로 그의 부친은 東江 申翊奎(1605~1660)이다. 15세 무렵의 운와는 김창흡이 중심이 된 낙송루시사와 김창립이 중심이 된 중택재시사에 참여하며 漢魏古詩와 樂府詩를 익혔다.

낙송루시사는 1682년 김창흡이 지은 낙송루에서 홍세태·이규명이 중심이 되어 독서와 강학, 作詩와 품평을 하던 시사였고, 중택재시사는 김창흡의 막

넷동생 김창립을 중심으로 유명악·홍유인·홍중성·정용하·최동표 등 젊은 연배들이 중심이 되었던 시사로 『詩經』의 風雅를 고취하고 漢魏의 古詩를 추구하였다.²³⁾ 『운와집』에는 두 시사에서 창작한 작품은 남아있지 않으나 20세인 1688년 황해도 안악 군수로 부임하는 부친을 따라가며 낙송루시사 동인들과 이별하며 지은 시 〈叙別洛誦樓諸友〉와 함께 시사 활동을 했던 유명악의 만시 〈俞淸州君四命岳挽〉을 통해 운와가 낙송루와 증택재시사에 참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청주사군명악만〉의 함련 ‘深交契比宗雷密, 傑句源從漢魏來’는 유명악의 詩句가 漢魏에서 근원했음을 밝히고 있는데, 유명악과 함께 김창흡 문하에서 시를 익혔던 운와의 詩作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청년 시절 운와가 참여하였던 두 시사는 오락과 친목의 성격보다 詩學의 목적이 뚜렷한 성격의 시사라고 할 수 있다.

소론계인 운와가 노론계인 김창흡의 문인이 된 것은 인척 관계가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운와의 외조부 洪命一(1603~1651)의 아들 洪處宇(1648~1693)는 운와의 외숙이 되는데²⁴⁾ 홍처우의 사위가 김창흡의 동생 金昌緝(1662~1713)이다.²⁵⁾ 이러한 인척 관계가 운와가 노론계인 김창흡의 문인이 되는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청년기의 운와는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으로 서인 세력이 정계에서 물러나자 과거 공부를 그만두었다가 1694년(숙종 20) 갑술환국으로 다시 서인 세력이 정권을 잡자 비로소 학업에 나아갔고, 1696년(숙종 22) 29세에 진사시에 합격했으나 관직에 나가지 않다가 1706년(숙종 32) 39세가 돼서야 厚陵參奉이 되어 관직에 나아갔다.²⁶⁾ 당시 부친 홍만희가 후릉의 소재지인 豐德

23) 俞拓基, 〈題沛筑散轡後〉, 『知守齋集』 권15. “重澤洛誦, 具先生齋樓名. 是時先生之所設教, 蓋將以鼓發風雅, 追蹤漢魏, 一洗後世之庸陋, 而掉鞅直造于三百篇之後也.”

24) 洪重聖, 「外祖葆翁先生行狀」, 『芸窩集』 권6. “女適進士趙相鼎, 繼配貞敬夫人綾城具氏, 工曹正郎仁重之女, 竹憲容之孫, 有哲範懿行, 舉二男一女, 男長處宇, 欽谷縣令, 早世. 次處宙, 善山府使, 女適判決事洪萬恢, 卽重聖先府君也.”

25) 金洙根, 「先府君行狀」下, 『農巖集』 속집 권하. “昌業娶宗室益豐君湫女, 生三男, 祐謙·彥謙·信謙. 一女趙文命. 昌緝娶縣令洪處宇女, 生一女李望之.”

26) 洪良浩, 「祖考郡守贈吏曹參判府君墓誌」, 『耳溪集』 권32. “肅宗己巳, 坤宮遜于邸, 府君杜門廢學, 甲戌更化, 始復就. 丙子, 中進士第三名, 國俗重司馬魁, 士望屬於府君, 而爲主司所抑, 人皆稱屈, 府君自負甚高, 政曹屢欲官之而辭之力, 暫赴厚陵郡.”

의 수령으로 있었기에 부임하였으나 이듬해 홍만회가 벼슬에서 물러나자 운와도 함께 물러났다.

이 무렵 운와는 既望에 자주 시회를 갖고 蘇軾의 赤壁仙遊의 풍류를 즐기거나 시벗들과 함께 시를 지으며 돈독한 유대감을 쌓아 나갔다. 3차례에 걸쳐 충북 진안과 한양에서 이루어진 기망 시회는 소론계 문인이 대거 참여하였고, 동인의 집이 아닌 외부 공간에서 열린 시회라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중협²⁷⁾의 집인 樂齋에서도 시회를 가졌는데 이 시회에는 이중협·조하언·조하기·홍만적 등이 참여하여 96구에 이르는 장편의 聯句詩를 지으며 친목을 도모하였다. 조하언과 조하기 형제의 모친은 정명공주의 딸로 운와에게 고모가 됨으로 운와와 이들 형제는 고종사촌 간이 된다. 홍만적은 堂叔이다.

운와는 김창흡의 문인이자 노론계인 이병연·김영행·김시민 등과 함께 淸風溪와 三清洞에서 시회를 갖곤 하였다. 이들 역시 김창흡의 문인으로 운와와 지속적으로 교류하였다. 청풍계는 인왕산 자락에 있는 계곡으로 靑楓溪·楓溪라고도 불렸는데 여기에는 臥遊菴·淸風閣·太古亭 등이 있었다. 청풍계 시회는 자연을 완상하며 친목을 다지는 성격의 시회로 운와의 시 〈靑楓池閣與一源·士修諸人共賦〉·〈寄三清諸友〉·〈追記三清之會 寄樂齋諸友〉와 김시민의 〈太古亭 與芸窩·槎川 抽劒南集共賦〉²⁸⁾·〈芸窩·槎川約會楓溪 以詩速余 次韻〉²⁹⁾ 그리고 김영행의 〈太古亭 與洪君則重聖·李一源共賦〉³⁰⁾ 등을 통해 시회의 분위기를 살펴볼 수 있다.

운와는 중앙직보다 주로 다양한 지역의 지방관을 지냈는데 1719년(숙종 45)에 石城縣監, 1722년(경종 2)에는 金化縣監, 1724년(경종 4)에는 甑山縣監을 연이어 역임하였고, 김화 현감 시절에는 금강산을 유람하기도 하였다. 1727년(영조 3) 돈녕부 주부가 되어 중앙으로 돌아와 호조 정랑과 장악원 첨정을 역임하였고, 1728년(영조 4) 醴泉郡守로 나갔다가 이듬해 공조 좌랑이

27) 李重協(1681~?): 본관은 慶州. 자는 和仲이다. 1713년(숙종 39) 증광문과에 급제하였고, 사간원정언, 사헌부지평을 역임하고, 서장관으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1728년(영조 4) 승지를 거쳐 1736년 강원도관찰사를 역임하였으며, 1745년 대사간·공조참판을 거쳐 도승지가 되었다.

28) 金時敏, 〈太古亭 與芸窩·槎川 抽劒南集共賦〉, 『東圃集』 권4.

29) 金時敏, 〈芸窩·槎川約會楓溪 以詩速余 次韻〉, 『東圃集』 권4.

30) 金令行, 〈太古亭 與洪君則重聖·李一源共賦〉, 『弼雲詩稿』 책1.

되어 다시 복귀하였다. 1730년(영조 6) 丹陽郡守가 되었으나 다음해 모친상을 당해 관직에서 물러났다.

운와는 중앙 관직으로 돌아온 60세 무렵인 1727년부터 1730년 단양 군수로 나가기 전까지 자신의 집에서 자주 시회를 열었고, 조유수의 집에서 열린 新村詩會, 송성명의 집에서 열린 松石軒詩會, 조문명의 집에서 열린 藝谷詩會에도 자주 참석하였다.

운와가 참여했던 시회의 장소는 대개 동인들의 집을 돌아가며 이용하였다. 운와의 집은 서울의 泥岷[진고개]에 있었는데 남산 기슭 아래 명례궁 옛터에 지은 530칸에 이르는 대저택으로³¹⁾ 부친 흥만회가 조모인 정명공주로부터 상속받아 1671년에 완공하였다. 여기에는 四宜堂·守約堂·澄懷閣 등 여러 채의 건물들이 있었는데 이곳들은 시회의 장소로 자주 애용되었다.

수약당은 안채인 正堂 서쪽에 있는 건물로 북서쪽은 사의당의 남쪽 뜰과 연결되어 있다. 이곳에서 조유수·이병연·김창흡·조문명·윤순·홍세태 등이 참석하여 시사를 결성하고 날을 잡아 주연을 갖추어 수창하였는데 사람들이 중국의 香山과 東洛의 성대한 일에 비유하곤 하였다.³²⁾ 향산은 白居易가 낙양에서 결성한 香山耆老會를 말하고, 동락은 文彦博이 낙양에서 조직한 洛陽耆英會를 말한다. 수약당시회를 향산과 동락에 비유한 것은 수약당시회가 기로회의 성격을 띤 시회임을 짐작하게 한다. 『운와집』이나 시회에 참여했던 문인들의 문집에 ‘수약당’ 시회라는 명칭을 지닌 작품이 없어 구체적인 면모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운와의 시 〈耆會各和香山九老會詩韻〉를 비롯하여 조유수의 시 〈席上又次樂天九老會韻〉³³⁾은 수약당시회에서 창작한 작품으로 유추된다.

사의당은 정당 서쪽에 위치한 단독 건물로 사랑채였다.³⁴⁾ 사랑채는 외부

31) 洪敬謨, 「四宜堂志」, 『冠巖全書』 책23. “宅在漢城之南部, 坊曰薰陶, 洞曰泥岷, 卽木覓山下麓而明禮宮舊基也. 家舍並堡爲五百三十間.”

32) 洪敬謨, 「四宜堂志」, 『冠巖全書』 책23. “暨我高祖考芸窩府君雅尙清苦, 棲心澹泊, 翛然隱几, 以文史爲事, 而尤長於詩, 與趙后溪裕壽·李槎川秉淵·金三淵昌翁·趙鶴岩文命·尹白下淳·洪滄浪世泰結爲詩社, 分日眞酒, 唱酬於守約堂, 風流文彩, 爲世所慕, 比之香山東洛盛事.”

33) 趙裕壽, 〈席上又次樂天九老會韻〉, 『后溪集』 권5.

34) 박혜정·조재모, 「조선후기 사의당의 위치와 건축적 특징에 대한 추론」, 『건축역사연구』 26(2), 한국건축역사연구, 2017, 63쪽.

손님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운와의 집에서 열린 시회의 대부분이 이곳에서 열렸을 것으로 짐작된다. 사의당 주변에는 老松을 비롯하여 盤松과 벽오동, 영산홍 등 다양한 꽃들을 분재로 키웠고, 태호석 등 괴석들이 여기저기에 있어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데³⁵⁾ 조유수의 〈春深後復次寄四宜園〉³⁶⁾과 이하곤의 〈夏日會四宜亭拈韻 同君則一源各賦〉³⁷⁾에서 이러한 풍광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운와의 〈四宜堂 分韻共賦〉에서 당시 사의당시회의 성대한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운와의 손자인 홍양호도 사의당에서 시회를 열고, 시사 활동의 맥을 이어갔다.³⁸⁾

송석헌시회는 송성명의 집에서 열렸던 시회로 송석헌이라는 명칭은 집 주변에 오래된 소나무와 바위들이 많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³⁹⁾ 송성명은 1732년(영조 8) 사직 상소를 올리고 물러난 뒤⁴⁰⁾ 광진 나룻가에 집을 짓고 낙시를 하며 시회를 가졌는데⁴¹⁾ 운와를 비롯한 조유수·이덕수·조태억·윤순·조문명·조현명 등 소론계 문인들이 송석헌에 모여 자주 시회를 열었다. 당시 시회에 참여한 동인들의 문집에 송석헌시회에 관련된 시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어⁴²⁾ 송석헌시회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35) 이종묵, 「조선 후기 경화세족의 주거문화와 사의당(四宜堂)」,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589쪽.

36) 趙裕壽, 〈春深後復次寄四宜園〉, 『后溪集』 권3.

37) 李夏坤, 〈夏日會四宜亭拈韻 同君則一源各賦〉, 『頭陀草』 책8.

38) 洪良浩, 〈四宜堂月夜 會鄭幼能 克儉·金渾然 思渾 拈韻共賦〉, 『耳溪集』 권3.

39) 李宗誠, 「曹判書宋公神道碑銘」 并序, 『梧川集』 권10, “所居臨江, 環之以老石蒼松, 遂以松石名軒, 人皆不以官稱公, 而稱之爲松石軒.”

40) 『英祖實錄』 영조 8년, 10월 14일(무진) 4번째 기사.

41) 李宗誠, 「禮曹判書宋公神道碑銘」, 『梧川集』 권10. “公獨退處江干, 與老蔭散官, 日爲詩會釣遊而已. 家甚貧, 力田以自給, 所居臨江, 環之以老石蒼松, 遂以松石名軒, 人皆不以官稱公, 而稱之爲松石軒.”

42) 洪重聖, 〈松石軒 奉酬主人君集令〉·〈寄松石軒〉, 『芸窩集』 권1; 趙裕壽, 〈松石軒 次君則韻〉·〈次宋君集 成明 松石軒韻〉『后溪集』 권2, 〈松石軒雨中呼韻〉, 『后溪集』 권4, 〈赴華菴有故不齊會 轉造松石軒 夜次杜韻〉, 『后溪集』 권5; 趙文命, 〈題宋君集 成明 松石亭〉, 『鶴巖集』 책1; 趙顯命, 〈寄題宋君集 成明 廣津松石軒〉·〈和寄陶湖松石宋尙書 成明 詩 出雲伯氏樓名與宋台松石亭爲隣〉, 『歸鹿集』 권1; 李德壽, 〈宿松石軒 次君集韻〉·〈宋君集築亭於廣津 扁以松石 數年以來 退居其中 嘗有詩 要余繼和 夫斬刈凋喪之後 獨能保優遊閑逸之趣 斯固君集之幸也 然匠石弟子 有意剪取 而至於厭看 則莊生猶爲之危 余欲君集之益 自韜藏務修其在我者 故輒用其韵 綴蕪詞錄奉 以致區區之意云〉, 『西堂私載』 권2; 趙泰億, 〈陶谷 又以新構松石軒二律 見

신촌시회는 조유수의 집에서 열렸던 시회이다. 조유수는 1728년 관직에서 물러난 뒤 東郊의 新村에 작은 당을 세우고 여기에 柳州의 曠輿라는 편액을 쓰고 노래하며 시를 지었다.⁴³⁾ 운와를 비롯해 이병연·최주악·조하기·정선과 시사를 결성하여 바둑을 두고 시주를 즐겼는데 세간에서는 이 시사를 향산과 구로에 비유하고⁴⁴⁾ 있어 신촌시회 역시 기로회의 성격을 지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운와집』과 조유수의 『后溪集』에는 조유수의 집에서 동인들이 모여 지은 시가 여러 수가 있다.

수악당시회나 신촌시회, 송석헌시회는耆老會의 성격을 지닌 시회라고 짐작된다. 운와를 비롯한 참석 동인들의 나이가 60세 전후였고, 만년에耆社를 결성했다는 기록이 다수 확인되기 때문이다.⁴⁵⁾ 조유수의 시에는 ‘耆會’라는 시제가 붙은 시가 여러 수 있는데 <同城東耆社諸公 次東溟城西耆會帖韻>⁴⁶⁾·<沁尹宅作小耆會 兼饒北伯呼韻>·<請二老相公于南橋第 續成耆會>⁴⁷⁾·<椒泉耆會 次歐陽公觀五老詩韻>⁴⁸⁾·<梨院耆會呼韻>⁴⁹⁾ 등을 통해 당시 기로회 성격을 지닌 시회가 여러 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예곡시회와 송옹댁시회는 조문명과 윤창래의 집에서 열렸던 시회로 梅花를 감상하며 시를 짓던 梅社의 성격을 지녔다. 운와를 비롯한 소론계 문인들

寄要和 又於灘隣權君後重之來 申索不已 遂依韻和呈)·<同會松石軒 聯句寄示 遂用其韻 各呈三翁案下>、『謙齋集』 권21; 尹淳, <次宋君集松石軒韻> 乙巳, 『白下集』 권1.

43) 洪良浩, 「后溪趙公墓碣銘 并序」, 『耳溪集』 권30. “東郊新村, 依巖樹屋, 激流爲瀑, 方沼曲澗, 被以雜花奇石, 位置窈窕, 前起小堂, 扁以柳州曠輿之語, 角巾丹葵, 嘯咏其中.”

44) 洪良浩, 「后溪趙公墓碣銘」, 『耳溪集』 권30. “歸自朱峽, 營一區於東郊新村, 依巖樹屋, 激流爲瀑, 方沼曲澗, 被以雜花奇石, 位置窈窕, 前起小堂, 扁以柳州曠輿之語, 角巾丹葵, 嘯咏其中, 松石軒宋公成明, 退居東湖, 輕舟小驢, 聯翩來往, 與芸窩公暨·李槎川秉淵·崔溪西柱岳·曹橋西夏奇·鄭謙齋散, 約成詩社, 而謙齋則以三絕稱, 韶顏皓髮, 杖鳥交錯, 撚絃弄瑟, 傳盃敲韻, 超然出埃壙之表, 時人比之香山九老.”

45) 洪良浩, 「芸窩集跋」, 『耳溪集』 권16. “晚年, 與名公長德, 結爲耆社, 每春秋令辰, 選日置酒, 韶顏華髮, 照映簾几, 鳴琴賦詩, 毫墨淋漓, 文彩風流, 爲世所慕, 比之香山, 東洛盛事.”; 洪良浩, 「后溪趙公墓碣銘」, 『耳溪集』 권30. “松石軒宋公成明, 退居東湖, 輕舟小驢, 聯翩來往, 與芸窩公暨李槎川秉淵·崔溪西柱岳·曹橋西夏奇·鄭謙齋散, 約成詩社, 而謙齋則以三絕稱, 韶顏皓髮, 杖鳥交錯, 撚絃弄瑟, 傳盃敲韻, 超然出埃壙之表, 時人比之香山九老, 至有繪畫而傳之者.”

46) 趙裕壽, <同城東耆社諸公 次東溟城西耆會帖韻>, 『后溪集』 권4.

47) 趙裕壽, <沁尹宅作小耆會 兼饒北伯呼韻>·<請二老相公于南橋第 續成耆會>, 『后溪集』 권5.

48) 趙裕壽, <椒泉耆會 次歐陽公觀五老詩韻>, 『后溪集』 권5.

49) 趙裕壽, <梨院耆會呼韻>, 『后溪集』 권5.

은 매화 사랑이 지극했는데, 매화가 아름다운 동인들의 집을 찾아가 매화를 감상하며 시 짓기를 즐겼다. 원림에 조성된 자연적인 형태의 매화를 감상하는 경우도 있지만 盆梅를 통해 집안에서 매화를 감상하기도 하였다. 특히 조문명 집의 분매가 아름다워 자주 방문하고 시회를 가졌다.

운와는 1735년(영조 11) 68세에 江華經歷에 임명되어 부임하였으나 그해 11월 강화에서 운명하였다. 운와는 죽기 직전까지 시회 활동을 계속 이어갔는데 曹夏望(1682~1747)이 결성한 西泉梅花社에도 참석하려 했으나 병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고 운명하였다.⁵⁰⁾

운와와 함께 시회 활동을 했던 동인들은 대개 김창흡의 문인들과 소론계 문인들로 운와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이들이 많다. 김창흡의 문인들은 노론계와 소론계가 혼재되어 있는데 노론계로는 이규명·趙正萬(1656~1739)·김창엽·김시보·김창립·유명악·홍유인·이병연·이병성·김영행, 김시민, 정용하 등이고, 소론계로는 운와를 비롯하여 이하곤·조유수·조경명·조문명·조현명 형제 등이다. 이밖에 운와는 윤유와 윤순 형제, 송성명·이진급·이진좌·이덕수·조태억·윤창래·서명균·조하기·조하망·조성수 등 소론계 문인들과도 자주 시회를 가졌다.

주요 동인들을 살펴보면, 먼저 김창흡은 운와가 어려서부터 詩道의 방향을 이끌어준 스승으로 운와의 문학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김창흡은 15세나 연하인 운와를 知音이라 부르며 무척 아꼈으며, 운와도 김창흡을 늘 공경하며 그를 잊지 않았다.

김창흡 못지않게 운와가 따랐던 문인은 홍세태이다. 홍세태는 중인계층으로 운와보다 15세 연상이며, 김창흡과 함께 낙송루시사를 이끌었다. 운와와 홍세태는 나이와 신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를 주고 받으며 신분과 나이를 초월한 忘年之友로 지냈다.⁵¹⁾ 두 사람은 함께 松都를 여행하

50) 李匡臣(1700~1744)의 『先藁』에 수록된 시 〈泉社拈韻〉에 “是日洪芸窩與西州約會泉社而竟不之, 曹南郭君實適之故額聯云云.”이라는 주석이 있어 운와의 남다른 매화 애호를 짐작할 수 있다.

51) 『운와집』에는 홍세태와 주고받은 시가 25수 남아있고, 홍세태의 문집 『柳下集』에도 운와에게 보내거나 함께 지은 시가 11수 수록되어 있어 두 사람의 교유를 살필 수 있다.

기도 하고, 홍세태의 시에 대해 격의없이 비평하기도 했다.⁵²⁾

영조 대 최고의 시인으로 일컬어졌던 이병연은 운와의 6촌 동생⁵³⁾으로 시를 무척 좋아했던 공통본모가 있어 더욱 각별한 사이였다. 이병연은 운와의 사후 손자 홍양호에게 『운와집』의 발간을 권유하고 교정하기도 하였다.⁵⁴⁾

조유수와 그의 5촌 조카인 조경명·조문명·조현명 형제는 인척간이다. 이들 형제의 조부 趙相鼎(1631~?)은 운와의 부친 홍만희와 동서 지간으로 조상정의 아들이자 조경명 형제의 부친인 趙仁壽(?~?)은 운와와 이종사촌 간이다. 김창흡의 동생 김창업의 딸이 조문명과 혼인했으므로 운와와 사돈지간이 된다.⁵⁵⁾ 이러한 인척 관계로 인해 운와는 어린 나이부터 김창흡에게 시를 배우며 그의 시사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었고, 조유수와 조경명 형제들과 두터운 친분을 쌓으며 사회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

52) 1724년 운와는 홍세태가 자편한 『柳下集』을 읽은 후 홍세태 시의 병통에 대해 솔직하게 비평한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에서 운와는 홍세태가 여항인 사이에서 우뚝하며, 權輿(1569~1612)과 李達(1539~1612)은 만당에 불과하지만 홍세태는 초당을 본받았으므로 권필이나 이달보다 뛰어나다고 칭찬하였고, 홍세태 시의 5가지 병통에 대해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비평하였다(『與洪道長書』, 『芸窩集』 권5. “足下生晚海東, 崛起閭巷之間, 操數寸之管, 而與先輩作者相頡頏, 源頭深博, 則雖遜乎蘇·芝輩, 而其門路之正, 法度之雅, 地步之曠逸, 品格之高華, 有非蘇·芝輩所彷彿, 而掉鞅揚鑣, 欲高出於石·蓀兩公之上, 何者, 石·蓀則不過乎晚唐, 而足下則法初盛, 石·蓀則一味乎輕清, 而足下則尙雄渾. 然則雖謂之過石·蓀可矣. (중략) 足下之詩, 有大病五. 蓋辭理則達, 而根基不厚, 圓滿充足之力少, 浮躁餒乏之氣多, 間有欲揜而不得者, 病一也. 步趣欲其恢曠, 氣象欲其超逸, 雖在斗屋之內, 每作神遊八極語, 而汎而不切, 疎而不密, 輕揚過而沉重乏者, 十八九, 病二也. 興寄外似清冷, 而情境內乏濃郁, 未見有景中含情, 情外帶景之妙, 故凡於相締之詞, 臚行之什, 悠悠輕掉, 不曾致力於工緊且結束, 多散漫而少味, 病三也. 調或近俗, 意不帶新, 由其率爾唱出, 故稍欠精深, 覺得其發人所未發者, 絕無而廬有, 病四也. 出塞篇什, 宜乎悲壯, 故易入於粗豪, 唐杜則無此失, 而雪樓諸子輩所受病處也. 集中邊塞之曲, 此病居多, 燕南俠氣擊筑悲歌, 繁絃促節之太多, 緩歌慢舞之絕無, 病五也.”).

53) 이병연은 鵝溪 李山海(1539~1609)의 동생인 李山甫(1539~1594)의 5대손으로, 아버지는 병마절제도위 李湫(1647~1720)이고, 어머니는 豐山 洪氏 洪柱國(1623~1680)의 딸이다. 홍주국은 운와의 조부인 홍주원의 동생으로 운와와 이병연은 6촌지간이 된다.

54) 洪良浩, 『芸窩集跋』, 『耳溪集』 권16. “然槎川翁嘗謂良浩曰, 吾幃中, 詩近盛唐者, 惟爾祖耳, 不可無傳. 良浩於是發舊篋, 檢遺草, 初年作, 舉皆放失, 遍求於先契故家, 得尺箋斷幅, 哀輯爲若干卷, 就正於槎翁, 詩凡四編, 文若雜著二編. (중략) 小子亦且老矣, 竊懼久而泯翳, 舍弟明浩適守西郡, 用活字印行, 謹識聞見所及, 後之覽者, 尙可以論其世也.”

55) 金洙根, 『先府君行狀』下, 『農巖集』속집 권하. “昌業娶宗室益豐君湫女, 生三男, 祐謙·彥謙·信謙. 一女趙文命, 昌緝娶縣令洪處宇女, 生一女李望之, 昌立娶吏曹判書李敏敘女, 無子早沒, 以厚謙爲後, 一女李彥臣.”

3. 운와의 시회 활동 양상

운와는 소론계 문인이지만 노론계인 김창협(金昌協)의 문인이었으므로 黨色에 구애받지 않고 노·소론계 문인들과 활발하게 시회를 가질 수 있었다. 운와가 참여한 시회를 살펴보면 노·소론계가 혼재된 김창협(金昌協) 문인 중심의 시회와 친인척들이 중심이 된 소론계 시회로 나타난다.

시사나 시회는 활동 양상에 따라 정치적 결사의 同人會 성격, 과거 공부나 경전 공부를 위한 講讀會의 성격, 친목 도모의 親睦會 성격, 매화나 국화같은 화훼를 감상하는 花柳會의 성격, 서화골동이나 음악 감상을 겸하는 鑑賞會 성격 등이 附加된다.⁵⁶⁾ 이 장에서는 18세기 전반 운와가 참여했던 시회의 양상을 실제 작품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既望의 풍류 향유와 연대감의 강화 - 既望詩會

既望은 보름 다음날인 16일로 1082년 임술년 7월 기망에 蘇軾(소軾)이 赤壁 아래 배를 띄우고 술을 마시며 〈赤壁賦〉를 지은 이후 수많은 문인들이 이를 모방하여 기망의 풍류를 즐겼다. 운와를 비롯한 소론계 문인들도 기망에 모여 시주를 즐기며 친목을 도모하였다.

新晴氛翳淨秋霄	어둑하던 기운 이제 개여 가을밤 맑아지고
赤壁清遊又此宵	적벽의 맑은 유람 오늘 밤에 다시 이루어지니
宿鶴低回驚按瑟	잠자던 학은 비파 소리에 놀라 낮게 맴돌고
潛龍恍惚聽吹簫	잠룡은 피리 소리 들으며 황홀해하겠네
雲收峽口羣峰出	협곡 어귀의 구름 걷혀 산봉우리들 드러나고
月湧潭心半壁搖	못 한가운데 달빛 일렁거리 반벽이 흔들리는데
醉後挾仙如羽化	취해 부축받던 신선 날개 돋는 것 같으니
乘風擬到玉京遙	바람 타고 옥경의 요지에 이르겠네 ⁵⁷⁾

이 시는 〈衣巖泛舟 與呂師仲 光周·李仲約 眞儉 共賦〉로 1703년 7월 기망에

56) 안대회, 앞의 글, 427쪽.

57) 〈衣巖泛舟, 與呂師仲 光周·李仲約 眞儉 共賦〉并序, 『芸窩集』 권1.

충북 진안의 衣巖 아래 배를 띄우고 시회를 열었을 때 지은 시이다. 의암은 진안에서 동쪽으로 이십 리에 있는 바위로 勝處로 이름이 높았다. 이 시에는 기망의 달빛 아래 배를 타고 피리 소리를 들으며 赤壁 仙遊의 낭만적 풍류를 즐기는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 부기된 并序를 통해 당시 성대했던 기망 선유의 면모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⁵⁸⁾ 운와는 이날의 선유를 소식의 적벽 선유를 방불케 한다고 평하며, 柳宗元이 蘭亭을 두고 한 말을 인용하여 의암 역시 우리가 찾아왔기에 묻혀버리지 않은 것이라며 기망시회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었다. 이 시 다음에 수록된 〈衣巖月夜 又作泛舟之遊〉와 〈臨別 拈秋字〉의 미련인 ‘三日團圓一日別, 臨溪悵悵遲遲留’ 구절을 통해 운와가 사흘간 진안에 머물며 시회를 이어 갔으며, 이별의 아쉬움이 컸음을 알 수 있다.

4년 뒤인 1707년 10월 기망에도 시회를 열었는데 이때의 시회는 10월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이루어졌다. 다음의 글에서 당시 시회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정해년(1707년) 10월 기망에 여러 공들이 만하[윤유]의 교동 교제에 모여 구름과 달을 희롱하고 霜菊을 마시며 마침내 운자를 뽑아 시를 지어 칠언 근체시 2첩을 얻고 또 다음날 밤에 또 각각 오언 율시 한 수씩을 지었는데, 백하[윤순]가 아울러 축에 쓴 것이 이것이다. 그 자리에 함께 한 사람은 군수 조성수, 읍청현 이진좌, 판관 홍구채, 사천 이병연, 귀락 정 조경명과 그 동생 학암 상공[조문명], 만하[윤유]와 백하[윤순] 두 공, 동계 홍증구이다. 아, 예로부터 시가 일찍이 성대하고 많지 않았던 적은

58) 〈衣巖泛舟, 與呂師仲光周·李仲約眞儉共賦〉并序, 『芸窩集』 권1. “鎮安治東二十里, 有衣巖, 號爲勝區也. 癸未秋七月望, 余與長水倅權桓伯, 鎮安倅呂師仲及李仲約·李汝思兄弟往焉. 巖甚奇, 高千餘尺, 廣數百步, 卽其底, 仰面而視其巔上, 則松栝檜杉, 藹蔚鬱鬱. 下則水積而爲潭, 靑蒼靄靄, 神物之所窟宅也. 師仲命邑人結木爲筏, 筏可受六七人, 鎮安琴歌妓四人, 龍潭吹簫客一人至焉. (중략) 時已暮, 忽晦冥, 雷雨驟至, 咫尺不能辨, 遂蒼黃搬撤, 下山十許里, 得村舍憩焉. 夜已二鼓矣, 尋又雲陰乍解, 月色微吐, 師仲起而曰, 此來只爲衣巖之月, 今則雨收雲捲, 景色清美, 若懲美於雨而負此良夜, 得無爲山靈之嘲乎. 咸曰諾, 相與復到於巖下, 沙渚明淨, 星漢皎潔, 蕩棹沿洄, 與波上下, 師仲倚半酣, 咏蘇東坡赤壁賦, 命簫人和之, 餘響纏綿, 崖谷皆應, 眞上清仙譜也. 月光射潭心翻, 半壁幽晦窈窕, 悸不敢進, 遂興盡而返, 噫, 地同赤壁之勝, 時當七月之望, 況又有吹簫客, 殆與蘇老之遊彷彿, 已奇矣. 始以雨, 終以月, 若有造物者簸弄焉. 此又較蘇老之遊, 豈不尤奇乎哉. 柳子曰, 美不自美, 因人而彰, 蘭亭也不遭右軍, 則清湍脩竹, 蕪沒於空山, 是巖也微吾輩, 亦安知不與蘭亭同蕪沒也. 遭不遭, 豈非命也歟, 是以識.”

없으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능히 그 마음을 즐겁게 하고 일의 즐거움을 다하여 그 묘미를 드러낸 경우는 거의 드물었다. 지금 여러 공들은 모두 한 시대의 뛰어난 이들로써 글로 벼를 만나 노래와 시를 지어 드러내었으니 말의 정밀함과 거침, 문사의 늦고 빠름이 비록 서로 같지 않은 점이 있지만 모두 성정의 참됨에서 나왔으니 깊고 그윽한 대아의 음악이 있었다.⁵⁹⁾

위의 글은 홍경모가 쓴 「藝苑珍蹟」 중 일부로 1707년 10월 기망에 조성수⁶⁰⁾·이진좌·홍구채·이병연·조경명·조문명·윤유·윤순·홍중구 등이 한양에 있는 윤유의 교동 僑第에 모여 시회를 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이병연을 제외한 나머지 동인들은 모두 소론계 문인들이다.

위의 글을 통해 함께 모인 동인들이 모두 뜻을 같이하는 벗들이며, 서로 모여서 시를 지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시들이 비록 똑같지 않아도 모두 마음의 진심을 담았으므로 모두 大雅의 시에 비유하고 있음을 통해 운와와 시회의 동인들이 추구했던 시는 ‘眞情’을 담은 眞詩였음을 알 수 있다.

前夜文星耀一堂	지난밤 문성이 빛나던 한 집에서
喜逢詩伴即連牀	시벗들이 반갑게 만나 나란히 상을 차렸으니
孔融可使罇無酒	공융은 술동이에 술이 없어도 괜찮아했는데
荀令還慚座有香	순령은 자리에 향내 남은 것 되래 부끄러워했지
得月寒花迎客媚	달빛 받은 국화 어여쁘게 손님을 맞이하고
驚秋華髮照燈長	가을되어 놀란 흰머리에 오래도록 등불 비추네
暮年行樂斯爲快	만년의 행락 이처럼 상쾌한데
何用軒車做許忙	무엇하러 수레 타고 바쁘게 다니겠는가 ⁶¹⁾

59) 洪敬謨, 「藝苑珍蹟」, 『冠巖全書』 책26, “歲丁亥十月之既望, 諸公會于晚霞之校洞僑第, 弄雲月啜霜菊, 遂拈韻賦詩, 得七言近體二疊, 又於翌日夜, 各拈五言律一首, 而白下并書于軸, 卽是帖也. 與其席者郡守趙公星壽·挹清軒李公眞佐·判官洪公九采·槎川李公·歸樂亭趙公景命及其季鶴巖相公·晚霞·白下兩公·東溪洪公重喬也. 噫自古歌詩, 未嘗不盛且多也. 而會以同志, 能窮其賞心樂事之娛, 以發其妙者幾希矣. 今諸公俱以一代之英雋, 以文會友, 發爲歌詩者, 言之精粗, 辭之遲疾, 雖有所不相類者, 皆出於性情之眞, 而淵淵乎有大雅之音.”

60) 趙星壽(?~1729): 부친은 趙相槩(1637~1710)로 조문명의 조부인 조상정의 동생이며, 아들로 趙昌壽, 趙星壽, 趙最壽(1670~1739)를 두었다. 조상수는 장원서 별제, 長興庫主簿, 영친군수를 역임했다. 조성수는 조문명 형제들에게 5촌 숙부가 된다.

相逢一醉發朱顏	서로 만나면 한껏 취해 얼굴 붉어지니
書閣經秋靜掩關	서재는 가을 내내 문 닫힌 채 조용하고
霜重菊叢依淨榻	서리내린 국화 떨기 깨끗한 평상에 기대어 있는데
夜深星月動寒山	밤 깊어지니 별과 달은 차가운 산으로 지네
眞成放浪酒杯裏	술잔 속에서 방랑이 참되게 이루어지니
莫歎睽違城市間	성시 사이에서 만나지 못해도 한탄하지 마시게
好是主人投客轄	좋은 주인이 손님의 수레바퀴 비녀장을 던졌으니
天方欲曙我方還	하늘이 새벽 되어서야 돌아가겠구나 ⁶²⁾

위의 두 시는 <十月望夜 與李一源 秉淵·尹伯修 游·仲和 淳·洪敬叔 九采·德老 重耆·趙叔章 文命 次農巖韻>과 <十月既望 與李彥叔 眞佐·洪敬叔·李一源·趙叔章 約會校洞尹伯修僑第夜飲 拈韻同賦 時尹仲和 趙南老星壽 亦至>으로 1707년 10월 기망 시회에서 지은 시이다.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열린 이때의 시회에는 조성수·이병연·윤유·윤순 형제·조문명·홍구채·홍중구·조유수·이진좌가 참석했는데 이병연을 제외하고 모두 소론계 문인들이다.

첫 번째 시는 보름에 모여 김창협 시에 차운한 것으로 후한의 孔融과 荀彧의 고사를 인용해 시벗들이 반갑게 만나 시주를 나누는 정겨운 광경을 그리고 있다. 벗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시를 짓는 것이 높은 관직에 올라 바쁘게 다니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 시는 다음날인 16일 기망 시회의 풍경을 그린 것으로 시벗들을 다시 만나 술을 마시고 서리맞은 국화를 감상하며 시를 짓는 詩興이 가득 담겨 있다.

1709년 3월 기망에도 이덕수·윤창래 형제·이진원 등이 함께 시회를 가졌는데 『운와집』에는 이때 지은 시가 없고, 이덕수의 『西堂私載』에 수록된 <暮春之既望 尹伯脩兄弟 邀余及洪叔君則 李子深諸友 登故王子癡園 呼韻共賦> 3수를 통해 당시 시회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그 중 제2수는 바쁜 와중에도 틈

61) <十月望夜 與李一源 秉淵·尹伯修 游·仲和 淳·洪敬叔 九采·德老 重耆·趙叔章 文命 次農巖韻>, 丁亥, 『芸窩集』 권1.

62) <十月既望 與李彥叔 眞佐·洪敬叔·李一源·趙叔章 約會校洞尹伯修僑第夜飲 拈韻同賦 時尹仲和 趙南老星壽亦至>, 『芸窩集』 권1.

을 내어 모임을 만들고, 서로 만나서 해가 기울도록 시를 읊조리다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⁶³⁾

앞서 살펴본 1703년 7월의 기망시회가 소식의 적벽 선유의 풍류를 즐기는 낭만성이 짙은 시회였다면 1707년과 1709년의 기망시회는 詩友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성격이 강한 시회라고 할 수 있다.

2) 梅花 완상을 통한 詩興의 발현 - 松翁宅詩會·藝谷詩會

18세기는 도시를 중심으로 상업과 유통이 발달하면서 도시가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도시에 경제적 기반을 둔 경화세족들은 도성 안 자신의 집이나 가까운 근교에 園林을 조성하고 직접 꽃과 나무를 가꾸며 벗들과 詩·書·畵를 창작하고 감상하였고,⁶⁴⁾ 꽃과 나무를 감상하는 화류회 성격의 시회를 자주 열었다. 그중 매화를 감상하는 시회가 가장 성행했는데, 매화는 추운 겨울을 견디며 꽃망울을 터트리는 속성으로 인해 예부터 봄을 알리는 전령이자 은일과 지조를 상징하는 꽃으로 인식되어 왔고, 이러한 생태적 특성으로 인해 사대부로부터 특별한 애호를 받아왔다.⁶⁵⁾

梅欲開時意半酣
客從其下故停驂
窮冬風雪影疎密
一氣陰陽枝北南
看鏡衰容俱半百
行杯詩令已過三
社壇此會能相續
流水松間我亦參

매화 피려 할 때 마음은 거나하게 취해
손님 따라 내려가 말을 매어두니
눈보라 치던 한겨울 그림자 세글었다 뻑뻑해지고
음양의 온 기운이 가지 여기저기에 있네
거울을 보니 늙은 얼굴 모두 반백 살이고
술잔 돌리는 시령 벌써 세 번이나 지나는데
사직단과 이 모임 서로 계속될테니
흐르는 물과 술 사이에 나도 참석하리⁶⁶⁾

63) 李德壽, 〈暮春之既望 尹伯脩兄弟 邀余及洪叔君則 李子深諸友 登故王子癡園 呼韻共賦〉 3수 중 제2수, 『西堂私載』 권1. “林麓占闌闌, 遊人跡到稀. 偷閑成小集, 携手拂輕衣. 羃歷烟花晚, 參差城闕微. 沉吟盛衰事, 斜日未能歸.”

64) 하태일 외 5인, 「전통조경분야의 정원 명칭 사용에 대한 고찰」, 『한국전통문화연구』 1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2014, 104~105쪽.

65) 신익철, 「18세기 매화시의 세 가지 양상」, 『한국시가연구』 15, 한국시가학회, 2004, 98쪽.

66) 〈松翁宅 與弼翁賞梅竹共賦〉 3수 중 제3수, 『芸窩集』 권4.

이 시는 〈松翁宅 與弼翁賞梅竹共賦〉 3수 중 제3수로 윤창래⁶⁷⁾의 집에서 弼雲翁 김영행과 함께 매화와 대나무를 감상하며 함께 지은 시이다. 윤창래는 자가 伯勗, 호는 松陰으로 松翁으로도 불렸으며, 운와와 친분이 두터웠다. 김영행은 김창흡의 문인으로 운와와 함께 청풍계에서 시회를 갖곤 하였다. 이 시는 1730년에 창작된 것으로 짐작된다.⁶⁸⁾ 이 시의 함련은 매화가 지닌 ‘生生之理’의 의미를 잘 보여준다. 한겨울에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 그림자조차 성글었다가 봄이 되어 다시 가지에 꽃이 피고 잎이 돋는 자연의 이치를 그리고 있다. 또한 경련의 내용을 통해 시회의 규약인 詩令이 있었고, 술잔이 돌아올 때마다 시를 지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시회에 참여한 이들이 이 모임을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시회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련은 사직단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처럼 오늘의 시회가 계속되기를 소망하는 운와의 마음을 담고 있다.

玉貌嫌塵眼	옥같은 외모 세속의 눈을 싫어해
深於綺閣藏	깊숙이 비단 가리개에 숨어 있으니
霧橫迷素質	안개에 가린 듯 하얀 모습 흐릿해도
波細漏輕香	잔물결 같은 열은 향기 새어나가네
似妬三春色	석 달 봄을 질투하듯
那窺半面粧	어찌 얼굴 반만 화장하고 유혹하는가
欲知靈妙處	영묘한 곳 알고 싶어서인지
其下月流光	그 아래로 달빛이 환하네 ⁶⁹⁾
詩老聯翩不約來 章	늙은 시인이 오가다 약속 없이 와서
小龕寥落對殘梅	적막한 작은 감실에 남은 매화를 마주하니
驪壇旗鼓增神采 勛	문단의 막상막하 신묘한 풍채 더해지고
甲第歌鐘近斗魁	홀륭한 집의 음악 소리 북두성에 닿을 듯하네

67) 尹昌來(1664~?): 본관은 坡平, 자는 伯勗, 호는 松陰이다. 1699년(숙종 25) 식년시에 생원으로 합격하였고, 司饗院 僉正을 지냈다.

68) 이 시는 1730년에 출한 金尙鉉의 만시 〈金知事 尙鉉 丈挽〉과 李顯祿(1684~1730)의 만시 〈李參判 顯祿 挽〉 사이에 배치되어 있어 1730년 초봄에 지은 것으로 짐작된다.

69) 〈藝谷相公宅 盆梅盛敷 紙龕前面 以靑紗障垂 玲瓏透徹 儘一奇玩 錄奉一律 以要附和〉, 『芸窩集』 권4.

佳句欲聯吟石鼎 則 석정시 읊어 아름다운 짓구 이으며
 客愁將瀉酌金壘 金술잔 따르니 나그네 시름 쏟아지는데
 更須冬栢花初發 言 다시 보니 동백꽃 갓 피기 시작해
 花下清尊擬一開 章 꽃 아래 맑은 술잔에 한 송이 핀 듯하네⁷⁰⁾

위의 두 시는 〈藝谷相公宅 盆梅盛敷 紙龕前面 以青紗障垂 玲瓏透徹 儘一奇玩 錄奉一律 以要俯和〉와 〈冢宰宅聯句〉으로 조문명의 집에 있는 盆梅를 감상하고 지은 시이다. 藝谷은 조문명의 집이 있던 곳으로 조문명은 자신의 號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분매’는 화분에 심어진 매화 즉 매화 분재를 말한다. 18세기 들어 서울에는 분매의 완상 풍조가 성행했는데, 은일과 지조의 표상이었던 매화는 하나의 심미적 완상물로 점차 변화해 갔고,⁷¹⁾ 얼음덩어리를 잘라 그 속에 촛불을 밝혀놓고 매화를 감상하는 ‘氷燈照寶簾’이나 밀랍으로 매화를 빚어 만든 ‘輪回梅’를 감상하는 등 다양한 감상법이 등장하였다.⁷²⁾

첫 번째 시는 이와같은 다양한 매화 감상법의 한 예를 보여준다. 이날 시회에 모인 동인들은 감실 속 비단에 가려진 분매의 은은한 자태를 감상하였는데, 이러한 감상법은 조문명의 아들인 趙載浩(1702~1762)의 「梅社五詠記」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조재호는 분매 한 그루를 감실에 보관하여 비단으로 감싸 보호하고, 그 안에 金泥로 달을 그려 넣고, 아침마다 童僕을 시켜 물을 주게 하여 꽃을 길렀는데⁷³⁾ 이를 통해 분매가 놓인 감실에 금니로 그린 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수련과 함련은 비단이 드리워진 감실 속에 있는 분매의 모습을 은일과 지조를 상징하는 매화의 속성을 묘사하였고, 경련의 ‘半面粧’은 얼굴을 반만 화장했다가 쫓겨났다는 梁나라 元帝의 비 徐妃의 고사를 들어 비단에 가려 반만 보이는 매화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미련에 묘사한 달빛은 실제 달빛이 아니라 감실에 금니로 그린 달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70) 〈冢宰宅聯句〉 伯勳, 仲言俱會, 『芸窩集』 권4.

71) 신익철, 「조선시대 매화시의 전개와 특징」, 『동방한문학』 56, 동방한문학회, 2013, 194쪽.

72) 신익철, 위의 글, 192~195쪽.

73) 趙載浩, 「梅社五詠記」, 『梅社五詠』, “置盆梅一本, 藏于閣而護以紗, 以泥金畫月于閣之內, 每朝使僮澆水養花.”

두 번째 시는 조문명의 집에서 열린 시회에 참석했던 동인들이 지은 聯句 詩로 작은 감실에 남아있는 매화를 보며 시를 짓는 시회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조문명의 『鶴巖集』에 〈洪叔君則·尹令 昌來 伯勛·申修撰 致瑾·幼言來訪 賞梅聯句〉라는 제목으로 동일한 시가 있어 당시 시회에 참석한 동인을 확인할 수 있다. ‘冢宰’는 이조판서를 말하는데 조문명은 1729년(영조 5) 6월 이조판서에 제수되었다.⁷⁴⁾ 따라서 이 시는 이듬해 봄인 1730년 초봄에 지은 것으로 짐작된다. 이 시는 조문명·윤창래·윤와·신치근·조문명의 순서로 시구가 이어진다.

수련은 윤와를 비롯한 동인들이 매화를 보기 위해 들른 상황과 매화가 놓여있는 장소를 묘사하였고, 함련은 막상막하의 뛰어난 시재를 지닌 동인들이 매화를 보며 시를 짓는 가운데 음악 소리가 울리는 시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매화’가 詩作의 대상임을 알 수 있다. 경련의 ‘石鼎’은 韓愈의 〈石鼎聯句詩〉를 말한다. 한유의 연구시처럼 싯구를 이어가며 술을 마시고 시름을 털어내는 동인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매화와 더불어 갓 피기 시작한 동백꽃과 동백꽃이 비친 술잔은 꽃과 시가 어우러진 시회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킨다.

첫 번째 시가 매화의 자태와 감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두 번째 시는 매화를 감상하며 시를 읊는 시회의 풍경을 중점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조문명은 〈用聯韻各賦〉⁷⁵⁾의 미련에서 ‘公餘尙辦清閑趣, 詩會逢人取次開’라고 밝히고 있어 이 시회가 다음에도 이어지기를 바랐다.

위의 시 이외에도 윤와의 〈藝谷宅 與松翁賞梅共賦〉·〈冢宰趙叔章宅賞梅 追寄一律 以寓嘲諷之意〉·〈藝谷叔章宅 復就梅花詠 演成六章 用其韻以寄〉 등과 조문명의 〈六疊梅詠韻 呈芸窩詞案〉⁷⁶⁾, 그리고 조현명이 지은 〈后澗叔父有詩 言庚戌賞梅時 乞酒於藝谷云 次之〉⁷⁷⁾ 등을 통해 당시 조문명의 집에서 매화

74) 『英祖實錄』 영조 5년, 6월 6일(기묘), 1번째 기사.

75) 趙文命, 〈用聯韻各賦〉, 『鶴巖集』 책2. 이 시는 〈洪叔君則·尹令 昌來 伯勛·申修撰 致瑾 幼言來訪 賞梅聯句〉의 다음에 있어 동일한 시회에서 지은 시임을 알 수 있다.

76) 趙文命, 〈六疊梅詠韻 呈芸窩詞案〉, 『鶴巖集』 책2.

77) 趙顯命, 〈后澗叔父有詩 言庚戌賞梅時 乞酒於藝谷云 次之〉, 『歸鹿集』 권3.

감상을 위한 시회가 자주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운와의 6수 연작시 <藝谷叔章宅 復就梅花詠 演成六章 用其韻以寄>에 조문명은 7첩~10첩까지 첩운한 연작시 <六疊梅詠韻 呈芸窩詞案>으로 화답하며 매화 감상의 흥취를 이어나갔다.

조문명의 매화 사랑은 아들 조재호에게 이어졌는데, 조재호는 ‘梅社’라는 시사를 만들어 매화가 피고 질 때마다 동인들이 모여 지은 매화시 200수를 엮어 『梅花五詠』이라는 책을 편찬하기도 하였다.⁷⁸⁾

3) 한가로운 노년의 여유와高雅한 취미의 공유 - 守約堂詩會·四宜堂詩會

운와는 만년에 宋代의 기로회인 眞率會·香山耆老會·洛陽耆英會 등을 본뜬 기로회를 결성하여 동인들과 좋은 계절에 시주와 함께 거문고 연주, 서예와 바둑 등의 고아한 취미를 함께 즐겼다.

曾於香社挹遺芬	일찍이 향사에 남아있던 향기 떠 있고
箇箇蓬壺羽客羣	한 명 한 명이 봉래산의 신선들이니
事在千年留繪粉	천년의 일로 남아 그림에 머무를테고
人符九老襲蘭薰	구로회 사람과 부합되니 난초 향기 젖어드네
會成眞率儀何簡	진솔회 이루어졌으니 예절에 어찌 소홀하겠는가
筵設輪廻意却勤	차레되어 잔치 마련했는데 마음 되레 걱정스럽네
詩令也宜徵敏捷	시령은 마땅히 민첩하게 불러야 하는데
歌喉不藉吐氤氛	노래에 기대지 않아도 왕성한 기운 토해내네
逢秋陌過銀河雨	가을 맞은 길에 은하수 같은 비 지나가고
選地樓侵紫閣雲	땅을 골라 세운 누각에 자각봉의 구름 스며드네
不獨鄉扶靈壽杖	지팡이 든 시골의 늙은이 혼자자 아니니
恭將萬歲祝吾君	공손히 만세 부르며 우리 임금 축원하세 ⁷⁹⁾

이 시는 <耆會各和香山九老會詩韻>으로 시회의 풍경과 손님맞이에 정성을 기울이는 운와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이 시는 1735년에 졸한 李森

78) 강준흠 지음, 민족문화사연구소 한문분과 옮김, 『三溟詩話』, 소명출판, 2006, 354~366쪽.

79) <耆會各和香山九老會詩韻>, 『芸窩集』 권4.

(1677~1735)의 만시⁸⁰⁾와 1735년 강화유수로 부임했을 때 지은 시⁸¹⁾ 사이에 배치되어 있어 67세 때인 1735년에 지은 것으로 짐작된다. 이 시의 4~5구를 통해 운와가 결성한 시회가 耆老會였으며, 향산구로회와 진술회를 모델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술회는 송나라의 司馬光이 결성한 시사로 동인들이 모두 70세가 넘는 기로회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경치 좋은 곳을 찾아다니며 시주를 즐기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시사였다.⁸²⁾

이 시에서 운와는 시회를 진술회에 견주고, 동인들을 신선에 비유하며 시회의 격을 높이고 있다. 6구를 통해 시회의 장소는 동인들이 차례로 돌아가며 제 공하였고, 이번에는 운와의 차례였음을 알 수 있다. 혹시라도 손님 대접에 소홀함이 있을까 걱정하는 운와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이 시를 지은 장소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자신의 집에서 손님을 모시고 잔치를 열었으므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약당에서 지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마지막 구절은 이 시회의 목적이 시주를 즐기며 친목을 도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축원의 마음도 함께 도모하는 것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餘花不盡此園亭	남은 꽃 다지지 않은 이 정원에
故遣濃春滿眼停	무르익은 봄 떠났어도 눈에 가득 머물러있으니
陶令賦歸垂柳綠	도연명처럼 늘어진 푸른 버들 속에서 귀거래사 읊고
米翁趨拜怪峰青	미불처럼 기이한 푸른 봉우리로 달려가 절하리
身衰策自稱扶老	늙은 이 몸 스스로 부축받는 노인네라 칭하고
客醉堂應號聚星	취한 손님들 응당 별들이 모인 것이라 부르네
投矢啗壺眞盛事	비뚤어진 항아리에 투호 놀이 참으로 성대한 일이니
九扶遺制設中庭	9부의 예전 제도 본떠 뜰 가운데 설치하네 ⁸³⁾

80) 〈李判書森挽〉, 『芸窩集』 권4.

81) 〈登沁都南城 蒞江華時, 傳燈寺 用唐律韻〉, 『芸窩集』 권4.

82) 宋代에는 벼슬에서 물러난 전직 관료들이 노후에 기로회를 만들고 친목을 다지는 시사가 많이 결성되었는데 文彦博의 洛陽耆英會와 사마광의 眞率會가 대표적이다. 사마광은 1083년 65세로 은퇴하면서 南園에서 伯康司馬旦(78세), 君從席汝言(78세), 安之王尙恭(77세), 正叔楚建中(74세), 不疑, 王謹言(73세), 叔達趙粹中(70세) 등 7명과 진술회를 만들었다(司馬光, 『司馬文正公傳家集』 권11. “二十六日作眞率會, 伯康與君從七十八歲, 安之七十七歲, 正叔七十四歲, 不疑七十三歲, 叔達七十歲, 光六十五歲, 合五百一十五歲, 口號成詩, 用安之前韻”).

83) 〈四宜堂 分韻共賦〉 『芸窩集』 권3.

이 시는 〈四宜堂 分韻共賦〉로 운와의 집인 사의당에서 시회를 갖고 지은 시이다. 사의당은 안채인 正堂의 동쪽에 있던 사랑채이다. ‘사의당’이라는 명칭은 흥만회가 꽃과 돌, 거문고, 바둑을 즐겼는데 이 네 가지를 즐기기에 마땅한 집이라는 뜻으로 사의당이라는 명칭을 취한 듯하다.⁸⁴⁾ 사의당에는 정명공주 대부터 내려오는 玄鶴琴, 犀角등 귀한 기물들이 있었고, 부친 흥만회 이래로 가꾸어 온 귀한 화훼와 기석 등이 원림에 가득하여 맑은 감상 거리를 제공하였다.⁸⁵⁾ 이러한 까닭에 사의당은 시회의 주요 장소가 되었다. 이 시는 1725년 은천군수로 부임한 이병연⁸⁶⁾에게 보낸 시 〈用前韻 寄一源銀川郡齋〉와 같은 해 문외출송을 당한 柳綏(1415~1481)⁸⁷⁾에게 보낸 시 〈復用前韻 寄柳汝懷 綏 謫所〉 사이에 배치되어 있어 57세인 1725년에 창작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 시는 ‘分韻’으로 지은 것인데 분운은 몇 사람이 시를 짓기로 약속했을 때에 여러 개의 글자 중에 각각 한 글자를 고르고 자기가 뽑은 글자를 운자로 삼아 시를 짓는 것으로 즉석에서 지어야 하는 규칙이 있다. 즉흥적으로 시를 지어야 한다는 점은 일정 수준 이상의 詩作 능력이 요구된다. 시회에 참석한 동인들이 시 짓기에 매우 능숙한 이들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시회에 참석한 동인의 규모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 시회의 자세한 면모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분운으로 함께 시를 지었다는 것은 다수의 인원이 참석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 시는 늦봄의 정취가 남아있는 사의당의 정원과 투호놀이 준비를 하는 광경이 잘 묘사되어 있다. 운와는 자신을 도연명과 米芾에 비유하여 벼슬에서 물러나 한가로이 은거하고 싶은 마음과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즐기며 살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었다. 米翁은 송나라의 書畫家인 미불을 가리키는데, 기암괴석을 매우 좋아해 어느 날 기이한 돌을 보자 뜰 아래로 내려와 절을 했다는 고사가 전한다. 사의당 뜰에는 기암괴석이 유명했는데 운와도 미불처럼 기암괴석의 감상을 즐겼음을 알 수 있다.

84) 이종묵, 앞의 글, 574쪽.

85) 박은순, 앞의 글, 418쪽.

86) 『英祖實錄』 영조 1년, 4월 10일(정축), 33번째 기사.

87) 『英祖實錄』 영조 1년, 9월 24일(무오), 16번째 기사.

미련의 ‘哨壺’는 ‘枉矢哨壺’을 말하는 것으로 ‘구부러진 화살과 비뚤어진 향아리’는 투호를 할 때 주인이 손님을 즐겁게 대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九扶’는 투호에 쓸 화살의 길이가 9부라는 뜻으로, 9부의 화살은 공간이 넓어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사의당 뜰이 그만큼 넓었음을 의미한다. 봄이 한창 무르익은 늦봄의 정취 속에서 노년의 운와가 손님을 대접하고, 투호놀이 준비를 하는 여유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또한 운와는 동인들과 함께 모여 바둑을 두거나 거문고를 연주하며 시를 짓고, 차와 술을 마시는 高雅한 취미를 공유하였는데 사랑채인 사의당이 그 주요 장소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青青艾已細登盤
客至園亭馬歇鞍
白髮怪君詩律健
紅塵愛此戶庭寬
盆梅半向基樽墮
山雪猶侵筆硯寒
自笑貧家無長物
但將麤糲一留歡

파릇파릇한 쑥 벌써 가늘어져 소반에 오르고
정원의 정자에 손님 도착해 말을 멈추니
백발의 기이한 그대들 시율에 뛰어내고
세상이 아끼는 이곳 집안 뜰은 넓은데
분매에 반쯤 향해 바둑과 술 마시기 게을리하고
산에 눈이 아직 남아있어 붓과 벼루 차갑네
가난한 집에 남은 물건 없어도 절로 웃음 나니
다만 거친 밥에도 한 번씩 머물며 기뻐하네⁸⁸⁾

敵手臨碁落子遲
午陰忘却到楓枝
雨園氣自渾山潤
風閣涼多入簾吹
學士丰標兼彈印
天官雅律代彈絲
十餘年後重開壘
才窘嗟無副急詩

적수끼리 바둑에 임하니 바둑돌 두기 더뎌져
낮 그늘이 단풍나무 가지에 이른 줄도 잊었는데
비오는 정원 날씨 절로 산을 적서 흐릿하고
바람이 누각으로 시원하게 대자리에 불어오니
학사는 고운 모습에 겸하여 인장을 늘어트리고
천관은 우아한 시율 대신해 거문고 연주하네
십여 년 후 다시 보루를 열면
모자란 재주 탄식하지 않고 열른 시 지으리⁸⁹⁾

위의 두 시는 <早春煮艾 與一源兄弟用汝·叔章·子野·滄逸 道長號 共賦>와 <叔章·君集·英叟見訪 抽韻共賦>로 동인들이 운와의 집으로 찾아와 함께 지

88) <早春煮艾 與一源兄弟用汝·叔章·子野·滄逸 道長號 共賦>, 『芸窩集』 권2.

89) <叔章·君集·英叟見訪 抽韻共賦>, 『芸窩集』 권4

은 시이다. 첫 번째 시는 이른 봄날 일월 이병연·숙장 조유수·자야 이신·창일 홍세태가 찾아와 함께 쑥국을 먹으며 지은 시이다. 이 시는 1717년에 초봄에 지은 것으로 이날 모인 동인들은 모두 김창흡의 문인들이다. 초봄에는 갓 올라오는 어린 쑥을 넣어 끓인 艾湯을 먹는 풍속이 있었는데, 수련은 애탕국을 마련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 경련을 통해 동인들이 평소 사회에서 바둑과 시주를 즐기며, 서예의 취미를 공유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오늘의 시회는 평소와 달리 분매를 감상하느라 바둑과 술 마시기도 뒷전이고, 추운 날씨 탓에 붓과 벼루가 차가워져 글씨를 쓰는 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비록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어도 함께 모여 소박한 음식으로 정을 나누는 모습이 정겹게 느껴진다.

두 번째 시는 조문명·송성명·趙泰耆(1673~?)⁹⁰⁾가 찾아와 바둑과 거문고 연주를 즐기는 모습을 그린 시이다. 이 시는 1729년에 지은 것으로⁹¹⁾ 당시 방문한 이들은 모두 소론계 문인들이다. 이 시는 한낮이 어두워지는 줄도 모르고 바둑을 두다가 비가 내리자 바둑을 멈추고 비 내리는 정원을 감상하며 거문고 연주를 듣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소론계 문인들은 詩·書·畵에 관심이 높았는데, 이러한 관심은 예술의 후원으로 이어져 노론계인 겸재 정선과 교류하며 후원하기도 하였다.⁹²⁾

4. 맺음말

이상으로 운와 홍중성의 시회 활동과 그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운와는

90) 趙泰耆(1673~?) : 본관은 楊州. 자는 英叟이다. 부친은 趙師錫(1632~1693)이다. 1699년(숙종 25) 식년시 진사 급제하였고, 南平縣監과 淳昌郡守, 淮陽府使, 사복시 첨정 등을 지냈다.

91) 이 시는 이병연이 1729년 은천 군수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지은 시 〈李嶽下一源 自銀川賦歸 贈余以老仙障躑躅杖 以助閒中寓興扶老之資 意甚不俗矣 昔歐陽公有書畵琴棋與酒樽而自號以六一 余得此兩物 以爲之友 則自號以三一 不亦可乎 詩以謝之 亦因以自笑云〉과 1729년 宜寧縣監으로 나가는 조하망을 전송하며 지은 시 〈送雅仲出宰宜春〉 사이에 배치되어 있어 1729년에 지은 것으로 짐작된다.

92) 박은순, 「謙齋 鄭穀과 少論系 문인들의 후원과 교류(I)」, 『은지논총』 29, 은지학회, 2011, 403~404쪽. 운와를 비롯하여 조유수·윤창래·이하곤·이덕수·조현명, ·조구명 등은 정선의 작품을 소장하거나 詩帖의 題跋 등을 남겼다.

17세기 말~18세기 전반 한양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시회 활동을 전개했던 소론계 문인으로 어려서부터 시에 뛰어났으며, 당대 명류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운와의 행적을 기록한 여러 문헌에서도 당대 詩名이 높았던 문인들과 함께 시회를 결성하였다는 내용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러나 시회의 실체나 구체적인 양상, 그리고 시 작품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된 바가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운와의 시회 활동에 관한 기록과 『운와집』 소재 시, 시회에 참여한 동인들의 문집에 수록된 시를 토대로 운와가 참여한 시회의 구체적인 면모를 살펴보았다.

운와는 평생에 걸쳐 시회 활동을 이어 갔으므로 삶의 여정에 따라 그 양상이 변화했다. 일찍이 김창흡의 문인이 되어 김창흡이 결사한 낙송루시사와 김창흡의 동생 김창립이 결사한 중택재시사에 참여하여 한위고시와 악부시를 익히며 창작에 매진하였고, 중년 이후에는 소론계 문인들과 함께 기마에 여러 차례 시회를 열어 유대감을 다졌다. 또한 만년에는 매화를 완상하며 시흥을 돋우었고, 宋代의 기로회인 진솔회·향산구로회·낙양기영회 등을 본뜬 耆社를 결성하여 詩酒와 함께 거문고 연주, 서예와 화훼 감상, 차를 즐기는 고아한 취미 등을 함께 즐겼다.

대개의 시사는 같은 黨色의 동인들로 구성됐던 것과 달리 운와는 노·소론계 문인들과 함께 시사 및 시회 활동을 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노소 분기 이후에도 서인이라는 공통의 뿌리 속에서 김창흡의 문인이라는 공통분모와 혼맥으로 이어진 친인척 관계로 인해 노·소론계 문인들과 자연스럽게 함께 모여 시회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당시 탕평정국이라는 정치적 상황도 일정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운와와 시회 활동을 함께한 조유수·조문명·조현명·윤유·윤순·이덕수·조태억 등은 緩少계열로 노론계열과 함께 탕평정국에 참여했던 주요 관료들이었으므로 노론계인 김창흡의 문인들과 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시회의 장소는 대개 동인들의 집을 돌아가며 이용하였는데, 운와의 집은 530칸에 이르는 대저택으로 사의당과 수약당·징회각 등의 건물은 시회의 주요 장소가 되었다. 사의당은 사랑채로 운와의 집에서 열렸던 시회 대부분이 사의당에서 열렸을 것으로 짐작되며, 수약당에서 열린 시회는 세간에서 향

산과 구로에 비유했던 만큼 기로회의 성격을 지닌 시회로 파악된다.

운와와 함께 시회에 참여했던 동인들은 노·소론계가 혼재된 김창흡의 문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이들이 많았으며, 부정기적인 소규모 형태의 시회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같은 당끼리 정치적 단합을 위한 결속보다 詩友들과의 교유와 친목을 다지는 오락과 친목의 성격이 강한 시회들이었다.

운와의 시회 활동 양상을 운와가 지은 실제 작품들을 통해 기망의 풍류 향유와 연대감의 강화, 매화 완상을 통한 시흥의 발현, 한가로운 노년의 여유와 고아한 취미의 공유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1703년 7월 기망과 1707년 10월 기망, 그리고 1709년 3월 기망에 이루어진 기망 시회는 소론계 문인이 대거 참여했던 시회로, 1703년 7월 기망은 소식의 적벽선유를 좇아 배를 타고 동인들과 함께 기망의 풍류를 즐겼고, 1707년과 1709년의 기망시회는 한양에서 가진 시회로 동인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성격이 강한 시회였다. 또한 은일과 지조의 상징으로 사대부들의 사랑을 받아온 매화를 감상하며 시 창작을 즐겼는데 조문명 집에서 열렸던 예곡시회와 윤창래 집에서 가졌던 송옹택시회는 매화를 감상하는 梅社의 성격을 지닌 시회였다. 당시 성행했던 분매의 다양한 감상법과 매화를 대상으로 시흥을 돋우며 시회를 가졌던 시회의 풍경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름다운 꽃과 기암괴석으로 장식된 사의당 뜰에서 열린 투호놀이, 초봄에 동인들과 함께 모여 쑥국을 먹고 매화를 감상하며 시를 짓고 바둑을 두며, 거문고 연주를 듣는 정경들은 한가로운 노년의 여유와 고아한 취미를 함께 나누는 시회의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본고는 17세기 말~18세기 전반 활발한 시회 활동을 벌였던 운와의 시회 활동을 실제 작품을 통해 확인하여 운와의 시문학 연구의 편폭을 넓히고, 당시 한양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노·소론계 문인들의 시회 활동 양상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소론계 문인 중심의 시회를 비중있게 다룸으로써 동 시기 노·소론계 시회의 균형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회의 명칭이나 규모 등에 대한 기록의 부재로 시회의 면모가 다소 거칠게 파악되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하도록 한다.

참고문헌

1. 사료

金時敏, 『東圃集』, 한국문집총간 속 62, 민족문화추진회.
金令行, 『弼雲詩稿』, 한국문집총간 속 58, 민족문화추진회.
金昌協, 『農巖集』, 한국문집총간 161, 민족문화추진회.
俞拓基, 『知守齋集』, 한국문집총간 213, 민족문화추진회.
尹 淳, 『白下集』, 한국문집총간 192, 민족문화추진회.
李德壽, 『西堂私載』, 한국문집총간 186, 민족문화추진회.
李宗誠, 『梧川集』, 한국문집총간 214, 민족문화추진회.
李夏坤, 『頭陀草』, 한국문집총간 191, 민족문화추진회.
趙文命, 『鶴巖集』, 한국문집총간 192, 민족문화추진회.
趙裕壽, 『后溪集』, 한국문집총간 269, 민족문화추진회.
趙泰億, 『謙齋集』, 한국문집총간 189, 민족문화추진회.
趙顯命, 『歸鹿集』, 한국문집총간 212, 민족문화추진회.
洪重聖, 『芸窩集』, 한국문집총간 속 57, 민족문화추진회.
洪良浩, 『耳溪集』, 한국문집총간 241, 민족문화추진회.
洪敬謨, 『冠巖全書』, 한국문집총간 속 113~114, 민족문화추진회.
『英祖實錄』
『承政院日記』

2. 논저

김묘정, 「17세기 근기(近畿) 노론(老論)계열 시회(詩會)의 몇 가지 양상과 그 의미 -김창흡(金昌翕) 중심 시회를 대상으로」, 『동방한문학』 104, 동방한문학회, 2025.
박은순, 「謙齋 鄭敼과 少論系 문인들의 후원과 교류(I)」, 『온지논총』 29, 온지학회, 2011.
박혜정·조재모, 「조선후기 사의당의 위치와 건축적 특징에 대한 추론」, 『건축역사연구』 권26-2, 한국건축역사연구, 2017.
백진우, 「운와 홍증성의 산문론과 비평적 특질」, 『동양고전연구』 102, 동양고

전학회, 2026.

신영주, 「18~19세기 홍양호가의 예술 향유와 서예비평」,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신익철, 「18세기 매화시의 세 가지 양상」, 『한국시가연구』 15, 한국시가학회, 2004.

_____, 「조선시대 매화시의 전개와 특징」, 『동방한문학』 56, 동방한문학회, 2013.

안대회, 「18세기 시사의 현황과 전개 양상」, 『고전문학연구』 41, 한국고전문학회, 2013.

유명석, 「운와(芸窩) 홍중성(洪重聖)의 금강산 유람시 연구」, 『온지논총』 78, 온지학회, 2024.

윤재환, 「芸窩 洪重聖 記文 研究」, 『한문고전연구』 48, 한국한문고전학회, 2024.

이상주, 「운와(芸窩) 홍중성의 문학론에 대한 고찰」, 『남명학연구』 19, 경상국립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2005.

이종묵, 「조선후기 경화세족의 주거문화와 사의당(四宜堂)」,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차장섭, 『조선후기 별열 연구』, 일조각, 1997.

하태일 외 5인, 「전통조경분야의 정원 명칭 사용에 대한 고찰」, 『한국전통문화연구』 1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2014.

3. 기타 자료

한국고전종합DB(<http://www.db.itkc.or.kr>, 검색일 : 2026. 6. 1.)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검색일: 2026. 6. 1.)

〈Abstract〉

A Study on Unwha(芸窩) Hong Joong-sung(洪重聖)'s Poetry society Activities

Kim, Hyo-Joung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poetry society activities and aspects of Unwha Hong Joong-sung. Unwha was a literary man of Soron who excelled in poetry from an early age, and continued his poetry society activities throughout his life. Unwha was a literary man of Kim Chang-heup who participated in both the Noron and Soron poetry and the Soron poetry society, and in his youth he participated in Kim Chang-heup's Naksong Ru sisha and Joong Taekjae sisha Poetry to learn Hanwi Gosi and Akbusi. In his middle age, he often held poetry society with Soron literary writers of the sixteenth day of the lunar month, and in his later years, he frequently participated in poetry society plum blossoms, and created of Girohoe formed a meeting to strengthen friendship.

The aspects of poetry meeting in which Unwha participated, were divided into “strengthening the enjoyment of the sixteenth day of the lunar month and solidarity,” “expression of the enjoyment of poetry through the appreciate of plum blossoms,” and “sharing of leisure and elegant hobbies in a leisurely old age.” This paper is meaningful in that it confirms the current affairs activities of Unwha, which were active in the late 17th and early 18th centuries, through actual works, and confirms the poetry activities of Noron and Soron writers who were active in Hanyang at the time, and can give literary historical significance in that it balanced the research of Noron and Soron poetry at the same time by focusing on poetry centered on Soron literary writers.

* Key Words: Unwha Hong Joong-sung, the first half of the 18th century, Soron, poetry society, Kim Chang-heup

· 논문투고일: 2026년 6월 10일 · 심사완료일: 2026년 7월 8일 · 게재결정일: 2026년 7월 16일
--